

제7차 사키야다타 대회

10개 실천항목 채택·폐회

대만 타이베이 화범(華梵)대학에서 7월 11일부터 7일간 열린 제 7차 '사키야다타(Sakyadatta, 부처님의 말씀)' 국제 불교여성대회가 17일 성료됐다.

'선녀인(善女人)-세계의 교양'을 주제로 열린 대회의 성공을 축하하는 달라이라미의 메시지 낭독과 국제불교 불교여성협회 타이베이 분회 성립 선포 등으로 진행된 폐막식에서 27개국 326명 참가자들은 각계 각층의 보다 많은 여성 불자들이 사회 발전과 평화를 더욱 증진시킬 것을 발원했다.



17일 대회를 마친 후 화범대학 본관 앞에서 기념촬영한 27개국 여성 불자들.



폐막식에서 참가자들이 사후서원을 올리고 있다.



한국 비구니스님 등 참가자들이 부처님전에 촛불을 공양하며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있다.

테러·가난 반대 세계여성불자들 연대·평등 서원

여성 불자들은 이날 결의한 '대만 선언문'을 통해 '우리 여성 불자들은 지난 해 9.11 테러 이후 촉발된 테러리즘과 군국주의, 가아, 가난, 난개발 등에 대해 반대하고 평화와 비폭력, 평등의 문화를 창조할 것을 서원한다'며, 다음과 같은 10개항의 실천항목을 채택했다.

△평화, 조화, 사회적 정의를 위해 일할 불교 여성들의 연대강화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응용 분야 연구 △불교 여성들의 인류 평화 기여 △불교 전통에서 평화와 화합 추구 △남녀평등의 시각에서 불교를 새롭게 연구 △전세계에 비구니 승단 설립을 위해 노력 △여성의 영적 능력을 키워 존경받도록 한다 △여성들의 불

사키야다타 회장 혜공스님

"비구니 교육·수행담당할 국제여성 불자센터 추진"

교학 연구 및 수행 여건 조성 △국제적인 불교단체들과의 교류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 등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남전불교와 남반불교의 여성 불자들의 구조체(俱足) 비구니계 수어 불승에 대한 토론이 집중적으로 벌어졌다.

미국 출신으로 1980년 한국 번사에서 비구니계를 받은 사키야다타 회장 혜공스님(타미에 법명 Kama Lake Tsomi) 스님은 남반불교 국가들의 비구니계 수어를 독촉하는 국제기구의 성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달라이 라마 역시 축하전문에서 '만약 열린 마음을 가진 존경받는 학자들과 노 수행자들이 함께 모여, 여성 불자들의 구조체 계층에 대한 문제를 토론한다면 직접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신시아 불교신사 본원에서 예불을 올리는 '부처님의 말씀'. 한국, 대만, 미얀마 등 6개국 참가자들은 각국의 전통에 따라 예불을 올렸다. 앞줄사진은 사키야다타 회장 혜공스님.

2004년 제8차대회 한국서, 사키야다타 한국지부 설치

혜공 스님은 또 20여년전부터 달라이 라마는 비구니 계층에 대한 국제회의를 소집할 것을 권했다고 소개

하고, 인도 보드가야에 비구니 교육 및 수행을 담당할 국제여성불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떻게 지구촌 여성들이 상호협력해 잠재력을 발휘할 것인가를 핵심의제로 11개 분과에서 52명이 주제발

표한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한국측에서 중앙승가대 교수 분각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농인스님, 석담스님, 미지니아 주립대 종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조은수 미시간대 교수가 네편의 논문을 발표했다.(본지 377호 3면 기사 참조)

특히 이번 대회에서 한국 비구니회 회장 공우스님에서 중앙승가대 비구니연구소장 분각스님과 비구니회 사회국장 담교스님 등 4명이 대거 참석, 2004년 제8차 대회의 한국 개최와 관련한 수락 연설을 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사키야다타 한국지부를 결성키로 하고, 한국 지부 결성 책임자로 분각스님이 내정됐다.

달라이 라마 축하 메시지

"학자·노수행자들 함께 비구니 계층 토론 필요"

이번 대회에서 각국별로 시범을 보인 예불과 독경에서도 한국의 운율미와 장중함이 주목을 받았으며, 참선 실수(實修) 시간에는 오랜 전통에서 우리나라는 선장 비(禪定)로 과연 비구니종주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폐막식이 열린 후, 참가자들은 17-19일 불교신사 등 사찰과 자재공덕회 복지시설 등 불교자선사업의 현장을 참관했다. 국제불교여성협회 즉, 사키야다타 www.sakyadatta.org는 1987년 2월 인도 보드가야에서 결성된 세계 최대의 불교여성단체, 2년마다 국제대회를 열고 세계평화 증진, 승가의 계율과 여성의 역할 연구, 비구니 승단 설립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재경 기자 gkim1@buddhista.com
 사진제공=김홍희(사진가)

"불교실천 등 주제 한국대회 준비"

사키야다타 대회 한국대표단장 분각스님 인터뷰



연구 등을 이미 가제로 잡아놓은 분각 스님은 1억원에 달하는 소요경비를 마련, 7일간의 본행사과 2박3일간의 사찰 답사 등 10일간의 일정에서 한국 불교를 깊이 체험토록 배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키야다타 대회의 첫날 개막식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고, 처음 3일간은 서울중앙승가대 또는 동국대 등에서, 3일간은 경주교육회관에서 진행할 계획. 나머지 2박3일간의 답사는 불국사, 통도사를 비롯 내원사, 운문사, 불영사, 석남사 등 비구니선원과 강원에서 참선 등을 체험토록 할 생각이다. 분각스님은 "2004년 서울 사키야다타 대회는 한국 비구니 승단은 물론 한국 불교를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불교계와 정부의 관심 및 지원을 당부했다.



92세 대만 비구니원로...행사 적극후원

대회주관 화범대 설립자 효운스님

제7차 사키야다타 대회를 주관한 대만 화범(華梵)대학의 설립자인 효운(孝運) 스님은 92세의 비구니 스님으로서 행사를 특심양면으로 적극 후원해 찬사를 받았다. 대만 비구니계 원로인 효운 스님은 사종 합장을 하며, 겸손하고도 자상하게 참가자들을 대해 더욱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1990년 대만 최초로 불교와 현대 기술교육의 융합을 시도한 화범대학을 설립한 효운스님은 불교 인재 양성에 깊은 관심을 두고 홍콩에도 불교문화예술학원, 해해(慧海)중학 등 학교를 세웠다.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수행을 사회로 확장하는 자세가 철저한 대만 비구니계의 상징같은 존재다.

1912년 중국 광둥성(廣東省) 남해(南海)에서 태어난 효운 스님은 사천(四川) 창원(昌原) 노화상을 은사로 출가했다. 여러

서 부친으로부터 서화(書畫)를 배운 효운스님은 '영남(嶺南)의 여화갈(女畫)로 불릴 정도로 재주가 뛰어나 출가 이후에도, 인도에서 고인도 문화와 인도예술품을 공부하며 불교예술품의 지평을 넓혀갔다. 태국의 예술대학 석좌교수, 중국 문화대학 등의 교수로서 활약과 예술을 강의하기도 한 스님은 수많은 전 시회를 열고, 논집과 서화집, 시집 등을 발간해 대만의 불교사상 및 불교예술교육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다.

효운 스님의 결핵 및 예술교육을 통한 인간정토(人間淨土) 구현의 원력으로 화범대학은 세계 여성 불자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했다. 나약한 여성의 몸이지만 씩씩한 정신으로 자신의 수행, 교육, 사회봉사를 쉬지 않고 펼치는 대만 비구니들의 모습은 세계 비구니들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찬사를 얻기에 충분했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 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을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도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인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심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